

전라감영 · 전주부성 복원 방향 논의

전주시, 복원방향 정립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 역사·고고학·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들과 방향성 살피

전주시가 전라감영과 전주부성의 완전 복원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전주시와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소장 김병남)는 지난 24일 한국전통문화전당 교육장에서 '전라감영과 전주부성 복원방향 정립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전주 구도심 일원의 핵심 유적인 전라감영의 전체복원과 전주부성 복원을 앞두고 역사·고고학·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들과 미래지향적 문화재 복원을 위한 중장기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 발제에는 이동희 예원예술대학교 교수와 강원중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실장, 이경찬 원광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동희 예원예술대학교 교수는 '전

주부성 및 전라감영 복원의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독립영화의 집 건물 신축 시 전주성벽의 이미지를 담아 건축하거나 도로에 성벽길을 표시하는 등의 전주부성 복원 방법도 특색 있을 것"이라며 "40여 채 이상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 전라감영의 경우 건물들을 모두 복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물들만 복원해 전체부지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원중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실장은 "전주부성 축성 이전 시기인 통일신라 시대와 후백제시대의 건물지 등이 함께 확인되고 있는 만큼 추후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전주부성의 전체적인 형태와 규모 등의 성격은 물론 이전 시기의 지방행정 또는 도성의 형성 과정을 살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경찬 원광대학교 교수는 "전라감영지와 전주부성 일대의 역사상을 회복하는 것은 전주의 역사적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무엇보다도 시급한 사안"이라며 "복원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이를 관광자원화할 수 있도록 전주시가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이재운 전라감영 전체복원·전주부성 역사 재창조위원장을 좌장으로 김병남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장과 안선호 원광대학교 교수, 김남규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원, 이영일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학예연구관, 소영식 전주시현장지원센터장이 참여하는 종합토론회가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전주부성과 전라감영의 복원을 위한 중장기적 방향

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 조선왕조 500년 동안 호남의 정치, 경제, 문화를 이끌었던 통치기관인 전라감영의 경우 총사업비 104억 원이 투입돼 지난해 10월 1단계로 선화당과 내아, 관공각 등 동편 복원이 완료됐다. 전주의 구도심을 둘러싼 성곽인 전주부성은 발굴조사를 통해 완산구 경원동 3가 28-5번지 일원의 북동편 성벽과 고사동 340-1번지(옥도주차장) 일원에서 성곽의 기초시설이 발견됐다.

서배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학술세미나를 통해 전라감영과 전주부성의 복원에 대한 방향성을 꼼꼼히 살피보는 기회가 됐다"면서 "구도심의 활성화와 도시계획을 통한 시민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정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라감영 관찰사 밥상' 선보인다

전주시, 31일까지 판매 일반음식점 2곳 모집

조선시대 전라감영에서 올려진 관찰사 밥상이 전주지역 일반음식점에서 판매된다.

전주시는 오는 31일까지 전라감영 관찰사 밥상을 판매할 일반음식점 2곳을 모집한다.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130년 전 전라감영에서 제공했던 관찰사 밥상을 재현한 시는 이 밥상을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관광 상품으로 만들고자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판매 예정인 전라감영 관찰사 밥상은 △정식상(9첩반상) △간소상(5첩반상) △국밥 2종(소고기국, 피문어국) 등 3종류로, 업소별 특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전주에서 5년 이상 일반음식점을 운영해온 자로, 전주 비빔밥이나 한정식, 돌솥밥, 백반, 국밥을 취급하는 업소여야 한다. 전국적인 체인점이나 식품위생법 등 법을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등은 제외된다.

희망업소는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사업신청서 등 7구비서류를 지참해 전주시청 관광산업과 한식팀(완산구 기린대로 213, 6층)으로 방문 신청하거나 이메일(espoir8023@korea.kr) 또는 팩스(063-281-2622)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전라감영 관찰사 밥상을 판매할



정식상(9첩반상 춘하)

업소를 선정된 뒤 영업주와 종사자에게 조선시대 전라감영의 음식·문화·역사와 음식 조리법 등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식기와 메뉴보드판, 현판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전라감영 관찰사밥상의 정식 판매는 내년 2월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서유구 전라감사가 기록한 완영일록과 유희촌의 미암일기 등 고문헌, 1884년 주한 미국공사관 대리공사였던 조지 클레이튼 포크의 일기장 등을 토대로 조선시대 전라도 식재료와 조리법을 연구해 관찰사 밥상을 복원했다.

김성균 전주시 관광산업과장은 "관찰사 밥상을 음식관광 상품으로 육성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전주의 맛과 멋을 선보이는 기회로 만들고, 관찰사 밥상 판매업소에는 역사성이 있는 관찰사밥상을 판매한다는 자부심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교통사고 잦은 3개 구간 개선사업 완료

과거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던 전주지역 도로가 안전하게 정비됐다.

전주시는 올해 국비 3억 원 등 총 6억2000만 원을 투입해 △우아동 명주골네거리 △효자동 남전주전화국 사거리 △삼천동 세창짜임아파트 앞 사거리 등 3개 구간에서 추진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모두 완료됐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교통사고 잦은 남전주전화국 사거리 모습.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인명피해 건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교통안전 취약구간 선정해 도로구조를 개선하거나 도로안전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안전하게 만드는 사업으로, 시는 올해 교통안전 강화와 원활한 도로 소통에 중점을 두

고 사업을 추진했다.

우아동 명주골네거리의 경우 우회전 차로에서 백제대로로 합류할 때 시야 확보가 어려워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이에 시는 타이어뱅크 앞 우회전 차로의 선형을 조정해 백제대로 합류 시 시야 확보가 용이하도록

개선했다.

효자동 남전주전화국 사거리와 삼천동 세창짜임아파트 앞 사거리의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좌회전 대기차로를 연장했다. 또 해당 구간에 차선분리대를 설치해 무단횡단을 차단하도록 했다.

특히 우아동 명주골네거리와 효자동 남전주전화국 사거리는 인도에서 교통섬으로 이어지는 횡단보도를 고원식 횡단보도로 설치해 단차 없는 보행로를 제공하고 차량은 감속을 유도하는 등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했다.

향후 시는 내년도에도 교통사고 위험이 높거나 운전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5개소를 선정해 이 같은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월 효자동 영생고 사거리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을 통해 기존 7개 차로를 9개 차로로 2개 차로를 증설하고, 혁신·만성구에서 도심 지역으로 들어오는 노선에 우회전 차로를 조성해 정체 요인을 해소한 바 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올해 사업이 추진된 곳들은 차량 주행 시 사고위험이 높거나 급경사 등으로 사고발생 위험이 특히 높았던 곳"이라며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교통안전을 제고하고 원활한 소통을 도모할 수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승마장, 그린승마존 선정 기념 현판식 가져

전주승마장이 한국마사회 공모사업에 참여해 2021년 신규 그린승마존(협력승마시설)으로 선정됐다.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은 지난 24일 전주승마장에서 그린승마존 선정 기념 현판식을 가졌다.

한국마사회는 국내 우수 승마시설을 대상으로 그린승마존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린승마존으로 지정된 시설들은 한국마사회와 승마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국내 말산업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된다.

전주승마장은 그린승마존 지정에 따

라 말산업 표준화 매뉴얼 제공, 승마 활성화 사업 우선 참여, 기능능력인증제 참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전주승마장은 학생승마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전주시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승마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공공체육시설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학생은 물론 일반인들의 승마체험 기회 제공을 통한 승마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정주 공원운영부장은 "명실상부한 우수 승마시설로서 국내 말산업 발전에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국



마사회와 함께 하는 협력사업을 통해 승마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덕진선별진료소, 이전 운영

전주실내배드민턴장으로 이전
검체라인 확대 대기시간 단축
평일·주말 오전 9시부터 검사

전주시 덕진권역 선별진료소가 한국소리문화전당 맞은편 전주실내배드민턴장으로 이전된다.

전주보건소(소장 김신선)는 25일부터 기존 덕진구청 옆 덕진선별진료소를 전주실내배드민턴장(덕진구 소리로 6)으로 이전해 운영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진단검사자도 급증한 가운데 한파 속에서 기다리는 시민들과 추위와 싸우며 근무하는 의료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덕진선별진료소가 전주실내배드민턴장으로 옮겨지면 현재 3개인 검체라인

이 8개로 늘어나 검사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대기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또 주말에도 운영될 예정이어서 평일·주말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곳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전주실내배드민턴장 덕진선별진료소 운영을 앞두고 이날 전자문진표를 시험 운영하는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한 민간의 준비를 마쳤다.

김신선 소장은 "최근 코로나19 검사소 방문자 증가로 인한 긴 대기시간, 강추위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덕진선별진료소를 이전해 운영하게 됐다"면서 "당초 전주실내배드민턴장을 이용하시면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스스로 실천하고 참여하는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